

영원한 레전드 유상철, '하늘의 별' 되다

유상철 전 감독 취임암 투병 끝 별세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축 아테네 올림픽 8강 진출 기여 투병 중에도 명예감독 활동도

취임암 투병 끝에 7일 오후 향년 50세에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은 성인 국가대표로만 124경기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멀티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린 '레전드'다.

1994년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그해 A매치에도 데뷔한 그는 일찌감치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재능이라는 평가를 들 정도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키 183cm의 탄탄한 체구에서 비롯된 체력은 물론 골 감각과 헤딩, 수비 능력 등을 두루 갖춰 필드 플레이어의 웬만한 위치에서 설 수 있었다.

프로 첫해 수비수로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1998년엔 미드필더, 2002년엔 공격수로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을 훌륭히 소화했다. 1998년엔 K리그 득점왕(15골)까지 차지했다.

1998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 동점골,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추가골 등 태극마크를 달고도 굵직한 득점들을 남겼다.

한일 월드컵에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대표팀의 주축으로 '4강 신화'를 이끌었다. 이후엔 대표팀 주장 을 맡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엔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8강 진출에 기여했다.

K리그로는 울산에서만 뛰며 통산 142경기 37골 9도움을 남겼다. 일본 J리그에선 가시와 레이솔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요코하마에선 4시즌을 뛰며 2003·2004년 리그 2연패 등에 힘을 보탰다.

그는 2001년 6월 월드컵 전초전으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멕시코를 상대로 후반 코패가 부러진 가운데 헤딩 결승골을 넣어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2009년 춘천기계공고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을 맡아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 이듬해까지 지휘했다.

2014년부터 울산대 감독으로 경력을 쌓은 그는 2018년 전남 드래곤즈의 부름을 받아 프로 무대에 복귀했으나 8개월 만에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19년 5월 인천에 부임했으나 그해 10월 황달 증세로 입원했다. 11월 취임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구단 소셜 미디어로 직접 밝혔다.

그는 병마와 싸우며 인천의 1부 생존을 위한 경쟁도 놓치지 않았다. 인천은 2019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경남 FC와 비겨 10위를 확정하며 1부 잔류를 결정지었다.

유 전 감독은 지난해 초 명예감독으로 몰려나오면서 인천을 응원하며 치료에 전념했지만 유 전 감독은 끝내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광주산재병원과 산학협력 체결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학과장 이동우)는 최근 학교 건학관에서 근로복지공단 광주산재병원(대표원장 조동수)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과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방안 및 교류,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직무교육에 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호남대 제공>

퍼플고릴라, 광주 취약계층에 단백질음료 후원



건강기능식품업체 ㈜퍼플고릴라가 최근 광주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백질음료 3840개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에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광주시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광주신세계, 청년센터에 1000만원 기탁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사진)는 8일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광주청년센터에 기탁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동훈 대표와 박수민 광주청년센터장, 김영천 광주신세계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광주신세계가 이달 한 달 동안 분관 1층에서 받고 있는 캠페인 판매 수익금을 보태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해부터 매달 1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하기로 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취임암 투병 끝에 지난 7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2002년 6월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일월드컵 한국-스페인 8강전에서 히딩크 감독의 격려를 받는 모습(왼쪽)과 2019년 11월 30일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짓는 후 코칭스태프와 포옹하는 모습.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취임암 투병 끝에 지난 7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2002년 6월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일월드컵 한국-스페인 8강전에서 히딩크 감독의 격려를 받는 모습(왼쪽)과 2019년 11월 30일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짓는 후 코칭스태프와 포옹하는 모습.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UHD 숨터	00 대박부동산(재)	45 이 맛에 산다 스페셜	00 애니갤러리 30 헬로카봇10 벵 45 하나와 숲속친구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3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스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다큐 온(재)	00 KBS 뉴스타임 10 보토스 패밀리(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풀쟁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대박부동산	20 매너들 시즌2	00 골 때리는 그녀들 워킹업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토론	40 트롯 매직유랑단	30 라디오스타	3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12	1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20 김형철의 동네 한 바퀴(재)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5 나이트라인 35 닥터 365 40 남도의 보물 100선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코몽2	12:10 극한직업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가족이 맞습니다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00 땡땡땡 유치원	15:15 클래스e	<외면 마을 기행 -하드유키 두메산골, 파키스탄>
08:30 출몰! 슈퍼핑크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블면서 명하니 3부 산골남자 두서너>
09:00 시공	16:00 마사와 꿈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개구쟁이 조이	22:45 바닷가 사람들
09:30 몰랑	16:30 땡땡땡 유치원(재)	23:35 클래스e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음 4월 29일 戊子) ☎ 010-9790-8237

36년생 기대 해왔던 바가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48년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60년생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72년생 현상 유지야말로 상책임을 알고 진중해야 한다. 84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96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88

37년생 일도장해 하니 변화무쌍 하리라. 49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61년생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73년생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보태진다. 85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게 된다. 97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3, 68

38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50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62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74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86년생 현상이 나타나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8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 행운의 숫자 : 60, 75

39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 하느니라. 51년생 차선책을 강구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63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줌이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75년생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87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99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48, 94

40년생 크게 감동 받을 만한 일이 있다. 52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탈 할 것이다. 64년생 당달아 복받을 수도 있는 판국에 놓인다. 76년생 정성을 다 해왔다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88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회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00년생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작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35, 51

41년생 미리 정보의 수집부터 해줘야 한다. 53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65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77년생 별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9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이다. 01년생 평상시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56

42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54년생 당연시 하여 왔던 것 속에 의외의 행운이 있다. 66년생 극복하느라 못 하느니라 관건이 될 것이다. 78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90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것이 태반이라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02년생 침착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05, 65

43년생 일관 결실을 입태 하는 마당에 임하라. 55년생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미치는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67년생 인맥의 활용이 충분한 보루가 될 수 있다. 79년생 각별히 신중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91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42, 70

32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44년생 기준에 입각하여 확실치 않다면 성취하리라. 56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68년생 마무리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결과를 기다리라. 80년생 거주장소라면 버려도 된다. 92년생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장차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1

33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45년생 길이가 연관 되어 있음을 감안 해라. 57년생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라. 69년생 운색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1년생 승리를 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93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 왔던 것이 큰 승수를 보리라. 행운의 숫자 : 32, 98

34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46년생 작은 자이는 무시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58년생 분위기의 조성이 일차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70년생 길은이니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82년생 정확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94년생 실익이 없다면 아예 관련시킬 이유도 없겠다. 행운의 숫자 : 07, 71

35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47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9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안 된다. 71년생 긴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83년생 살펴볼 일이다. 95년생 물줄기가 세차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물레방아는 들 수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9, 89